"한옥마을 축제 콘텐츠 개발해야"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 5분발언 통해 촉구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이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순정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사진)은 22일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한국으로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를 관광도시로 이끈 한옥마을이 먹거리 중심의 상업화 문제와 정체성 논란과 더불어 대표 콘텐츠 부족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북 관광의 중심에 자리잡은 한옥마을 대표 컨텐츠로 한옥마을만의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객 외연 확대에만 집중해 정작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내 대규모 축제와 행사를 제한, '전주비빔밥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남부시장, 동문거리 등으로 외연을 분산해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주세계소리축제'도 한옥마을 공연을 한국소리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는 등 한옥마을 축제는 축소해왔다.

이처럼 한옥마을 축제가 외부로 분산되면서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전주대사습놀이와 한옥마을 야간 상설공연, 태조어진 본안행렬만 남았다.

김 의원은 "한옥마을 관광객의 분산을 통한 전주관광의 외연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빈약한 한옥마을 문화 콘텐츠를 위축시켜 한옥마를 관광의 매력을 놓쳐버릴 위험이 크다"고 역설했다.

한옥마을 대표 축제 콘텐츠로 김 의원은 전통 떡과 지역 전통주를 결합한 '전통 식문화 축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만의 강점을 살린 '전통 식문화 축제'와 같은 민관이 함께 주관하는 차별화된 음식문화축제를 개발하면 한옥마을 대표 축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문화 콘텐츠로 지난해 전동시장에서 시작해 올해 풍남문으로 자리를 옮긴 미디어파사드 프로그램,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 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며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주 한옥마을이 가진 강점을 살린 축제 콘텐츠를 개발, 정체된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2019년까지 397억원 투입
중앙처리구역 공사 진행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전주의 땅 속 지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97억원(국비 199억원, 지방비 198억원)을 투입해 금암동과 진북동, 노송동 주변 일원의 하수관로 55.3km를 정비하는 중앙처리구역(3·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동일관으로 배출되는 합류식 하수처리방식에서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 배출되는 분류식 하수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3분구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총길이 4.9=km과 10분구인 진북동 우체국 주변지역(총길이=3.9km) 등 모두 2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덕진·중앙(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중앙처리(8·9·10분구) 한옥마을 및 공구거리, 팔복(1·2분구) 팔복동 금학천 일원 지역의 경우에도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08억원을 투입해 61.1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완산소방서, 주택화재 대응 기동 서비스반 운영

완산소방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대응 기동 서비스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동 서비스반은 소방서 예방안전 2개 팀으로 운영, 지역주민이 신청할 경우 접수 후 3일 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건수 5183건 중 28%인 1433건(28%)이 주택화재로, 전체 인명피해 224명 중 53%인 119명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점검은 오는 2017년까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유무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제태환 서장은 "도민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진수기자

딱걸렸네 최근 군산경찰서 임대환 경위가 무허가로 젓갈 등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노상방뇨 나무란 행인 폭행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나무라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8일 저녁 8시께 전주시 한 커피숍 앞 노상에 소변을 보던 중 행인 A(49)씨가 "왜 노상방뇨를 하느냐"고 지적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지고 A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청년 3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기자

외제차만 나사못으로 긁어

고가의 외제차만 골라 나사못으로 긁어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2일 원룸 주차장에 세워진 외제 승용차를 나사못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A(34)씨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부터 뒤쪽 휀다까지 나사못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군산시 수송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 24대를 나사못으로 긁어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검거한 김강우 경위는 "피해금액은 차량 수리가 모두 끝나야 알 수 있다"며 "피의자가 범행동기를 말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안진수기자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전북교육청 유보 결정 갈등 우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전북교육청이 '유보' 결정을 내려 또다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전북 지부장과 정책실장, 본부 사무처장 등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4월20일까지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면서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교사를 면직 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에서 4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교조 교사를 직권면직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적 검토를 통한 신중모드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직권 면직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법률 검토 결과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직권면직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에 쫓겨 징계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기존 단협 무효화',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배제' 등 4가지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의회,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안 가결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이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창업지원과 경영안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주 시내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 발굴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전주시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지원 사항의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사업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업종전환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기반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세운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등 방송출연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